

# 김치대란에도 '사랑의 배추' 있었네

## 영광주민 2명, 2500만원 상당 3000포기 군에 기증 "싼 값에 판매해 수익금 불우이웃 돕기에 써달라"

"배추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사니 기분이 좋습니다. 더욱이 일부러 배추를 사 주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주려한 아름다운 마음씨가 고맙기만 합니다."

배추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싼 가격으로 배추를 공급해준 파스산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선행의 주인공은 영광읍에 거주하는 박모(52)씨와 김모(49)씨. 특히 박씨는 최근 자신의 고무마 저장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10억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이들의 선행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사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이들은 최근 배추값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전해 듣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이들은 최근 영광군에 사비를 털어 강원도 고랭지 배추 3000포기(2500만원 상당)를 구매해 영광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이를 저렴한 값에 군민들에게 판매해 줄 것과 배추 판매로 얻은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

청했다. 이들로부터 '사랑의 배추' 기탁의사를 전달받은 영광군은 선착순으로 배추를 나눠 판매하기로 했고, 소식을 들은 주민 30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배추 트럭을 기다렸다.

이들이 약속한대로 배추를 실은 5트럭이 8일 오전 7시 40분에 영광군에 도착했다. 영광군에서는 오전 8시부터 구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배추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행사를 가졌다. 군청 직원들은 독지가의 뜻에 따라 시중 가격의 30% 수준인 1방(3포기)에 8000원씩 판매했다.

기다랗게 줄을 서 차례로 배추를 산 주민들은 1인당 1방 밖에 살 수 없어 아쉽기는 했지만, 금값이라는 배추를 싸게 구해서인지 얼굴에 환박웃음이 가득했다.

배추를 사기 위해 2시간 전부터 기다렸다



8일 영광군 영광읍 구 실내체육관 광장 앞에서 주민들이 배추를 사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독지가 2명은 고랭지 배추 3000포기를 주민들에게 싼 가격에 팔아 판매액을 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영광군에 전달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는 백내순(55·영광읍 남천리)씨는 "그동안 배춧값이 너무 비싸서 배추 사는 것을 포기했었다"며 "이렇게 싸게 구매하게 해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철환(75·영광읍) 씨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나 싶다. 배추 김치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데 참 좋은 일을 하신 것 같다"고 박씨 등의 선행을 칭찬했다.

한편 영광군은 배추판매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기탁자의 뜻에 따라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쓸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나원침 (8138) 김종두



## 4억7000만원 탈취는 자작극

### 회삿돈 훔치기로 선·후배 범행 모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익원이 실린 차량 절취 도주 사건은 회삿돈을 빼돌리려던 직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목포의 한 건어물회사에 다니는 김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박모(47)씨와 베트남으로 보낼 회삿돈 4억7000만원을 훔치기로 모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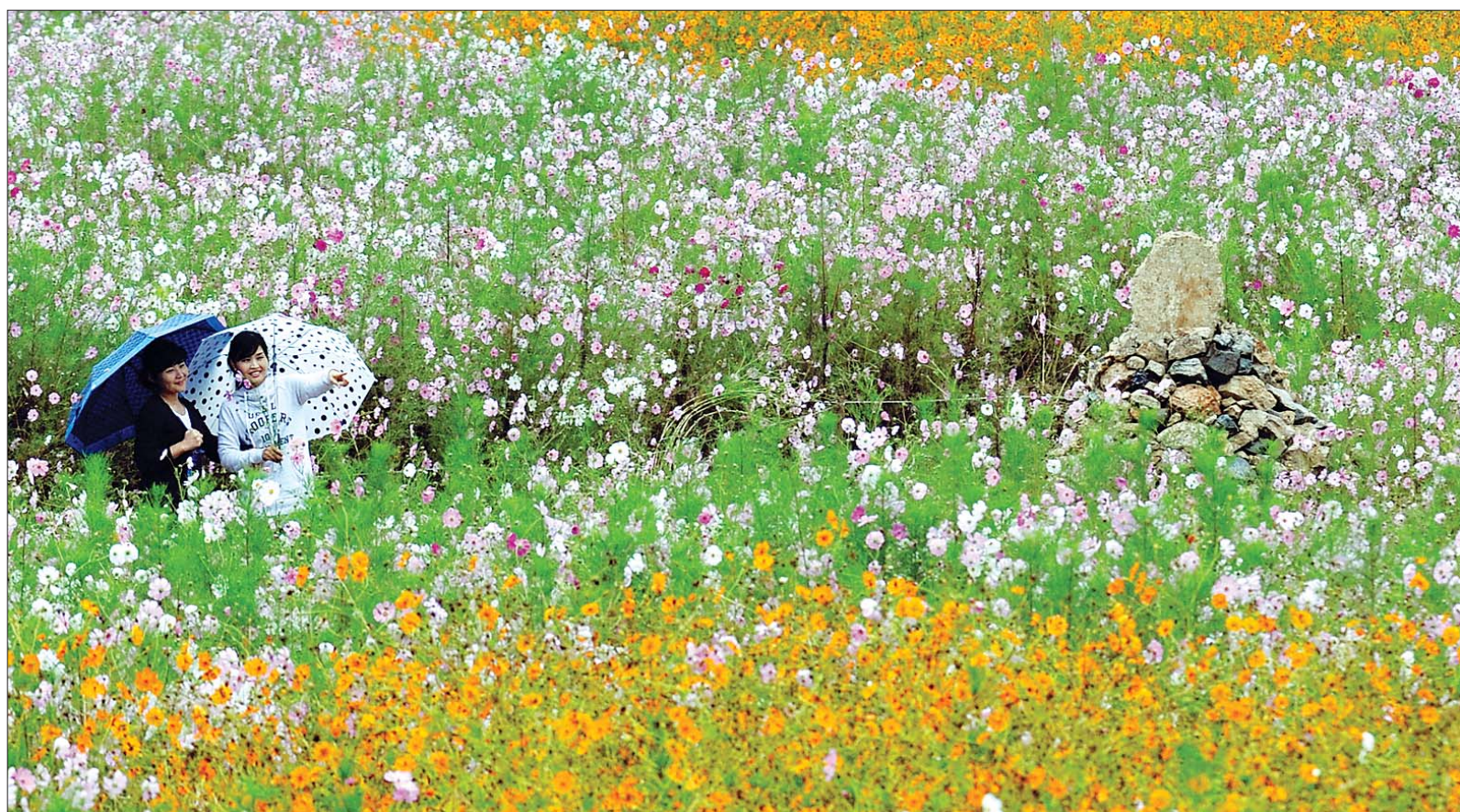
회사 총무부 직원인 김씨는 회사사장(43)이 베트남으로 출장간 틈을 이용, "서울에서 달러로 바꿔 베트남으로 거래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사장

을 속인 뒤 서울로 가던 중 도둑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것이다.

7일 오전 10시45분께 김씨는 미리 계획한 대로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에서 박씨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힌 후 결국 사건 전모를 밝혀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코스모스길 따라 가을 산책

촉촉한 비와 함께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 가을비가 내린 8일, 시민들이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룬 광주시 광산구 첨단1동 꽃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주말 휴일 일교차 10도 차이

주말과 휴일인 9일과 10일 광주·전남지역은 선선한 가운데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며 "한낮에는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17도, 낮 최고기온은 23도~26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 기온보다 1도~4도가량 높은 기온이다. 휴일인 10일에도 특별한 비 소식 없이 가을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기온은 13도~17도, 낮 기온은 23도~25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교차가 아침·저녁으로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야외 나들이 땀 가급적 걸음을 챙겨 가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주(11~15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비 소식은 없겠다고 예보했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3분 해질 18시 06분 달돋이 08시 04분 달질 18시 45분

**천고마비(天高馬肥)** 구름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광주	구름조금	15/25℃
목포	구름점차적립	15/24℃
여수	구름점차적립	17/23℃
완도	구름점차적립	15/25℃
구례	구름점차적립	12/26℃
애남	구름점차적립	13/25℃
장흥	구름점차적립	13/25℃
고흥	구름점차적립	13/25℃
순천	구름점차적립	15/25℃
영광	구름점차적립	14/24℃
진도	구름점차적립	13/25℃
전주	구름점차적립	14/25℃
남원	구름점차적립	11/25℃
속산도	구름점차적립	16/21℃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충청, 전북, 전남, 제주

종류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물증지수	뇌졸중지수
오전 바다	북~북동	0.5~1.0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오후 바다	북~북동	0.5~0.5m	☀	🌿	🏥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14/26	14/25	14/22	13/22	12/21	11/20

## '행복전도사'의 안타까운 죽음

### 광주출신 최윤희씨 "남편과 여행 떠납니다" 동반 자살

**질병 고통 못 이겨**

'행복전도사'로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작가지자 방송인 최윤희(63·광주출신)씨 부부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여 권이 넘는 저서와 함께 활발한 방송활동을 통해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던 최씨는 광주에서도 자주 강연을 가진 바 있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씨와 남편 김모(72)씨는 7일 오후 8시30분께 고양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함께 승진 체로 모델 지배인에게 발견됐다.

경기도 일산 경찰은 최씨 부부가 동반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씨 남편 김씨는 모텔에서 화장실 수건걸이에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김씨가 목매기 전 최씨를 먼저 끈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텔방 테이블 위에는 최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남편은 나를 혼자 보낼 수 없고 나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특히 최씨는 유서 봉투 겉면에 "완전 건강할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신했고 준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라는 말을 남겼다.

최씨는 최근 폐는 물론 심장까지 이상이 생기는 등 증세가 악화된 직후 전남 평강마을에 혼자 가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남편이 112에 신고해 심폐한 사실을 언론에 밝히는 등 극도의 심경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광주 출신인 최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런 비보에 크게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씨의 초등학교(서석초 49회) 동창 박모(63)씨는 "어렸을 적에도 밝고 똑똑해 주위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히 박씨는 지난 2006년 2월 KBS "TV는 사랑을 싣고"에 함께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인연을 이어오던 터라 매우 아쉬웠다.

최씨는 광주 서석초등학교와 전남여중, 중앙여고를 거쳐 이화여대 국문학부를 졸업했다.

주부로 지내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입사해 국장까지 승진하는 등 드문 이력의 소유자로 이후 책을 내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KBS "즐거운 세상", "행복만들기" 등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 행복전도사로 알려져 왔으며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임동률기자 lexian@kwangju.co.kr

## 관리비 1억5000만원 슬쩍 아파트 女직원 도박 탕진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에게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8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황모(여·38)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8년 9월 15일 오후 3시에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인들이 낸 전기요금·관리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최근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관리비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또 전기요금을 미납해 단전되려하자 다음달 분 전기요금을 입주민 400세대에 분할시켜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허위작성해 발송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정읍시장 시장직 유지

### 광주고범, 80만원 벌금형

광주고범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기(65)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경찰, 타블로 스탠퍼드대 졸업 확인

○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의 학력 위조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서울 서초경찰은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실제로 졸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타블로 측이 그동안 제시한 증거자료가 누리꾼의 주장대로 위조된 것인지, 학력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고 대학 측에 관련 서류를 직접 요청해 확인한 결과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고 결론.

○경찰은 타블로 측이 고소한 누리꾼 22명의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블로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자신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8월 누리꾼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연행뉴스

## 오늘 한글날... 북구청 '다함께 잘사는 북구' 띄어쓰기 논란

### 민원인 "잘 사는' 띄어 써야 맞다" 제기

### 국립국어원 '잘사는' 붙여 쓰는 게 맞다

"다함께 '잘사는' 북구" 최근 자신을 전 광주 D고교 교장 출신이라고 밝힌 60대 남성이 슬로건 중 '잘사는'이라는 부분의 띄어쓰기가 잘못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 남성은 "잘사는'이 아니라 '잘 사는'으로 띄어쓰기를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북구청은 "'경제적인 부'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가 표기한 '잘사는'으로 쓰는 게 옳다"고 답변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북구청에서 주장한 동사 형태의 '잘사는'이라는 단어의 뜻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잘 살다'는 부사+동사의 형

태로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다'는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할 때 북구청의 주장대로 '잘사는'이라는 단어를 붙여 써야 한다는 게 국립국어원의 설명이다.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손희하 교수는 "빈번하게 쓰는 어형은 한 단어로 인식해 붙여쓰는 게 맞다"며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우리말 기준인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보면 '잘살다'라는 단어는 붙여쓰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